

5·18 민주화 운동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명수에게

도서명 : 오월의 달리기

김성윤

안녕? 난 5·18 민주화 운동처럼 잔인하고 슬픈 일을 아직 겪어본 적 없는 13살 김성윤이라고 해. 너에게 5·18 민주화 운동은 큰 반환점이자 최대의 오르막길이였겠지. 마라톤에서 10km 순탄한 평지였다가 갑자기 나오는 구불구불한 오르막길 말이야.

유난히 땀박질을 잘 했던 년, 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한 대표자리를 따내고 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 합숙소로 가게 되지. 합숙소에서의 여러 밤이 지나가고 오월의 어느 날, 너와 친구들은 몰래 합숙소를 빠져나와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실컷 본 뒤에 광주공원으로 향한 너와 친구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돼. 그날은 바로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이지. 여러 사람들이 정작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 손에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년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거야.

만약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년 달리기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아버지를 잃은 년 달리기 국가대표라는 꿈을 접고 아버지의 꿈이었던 시간을 만드는 시계공이라는 꿈을 위해 달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시계공이 된 너를 찾아온 계엄군의 사과를 받고 5·18 이후 멈춰있던 시계처럼 너의 시간도 흘러가게 되지.

5·18 민주화 운동은 까마득히 멀어진 과거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마냥 먼 과거는 아닌 것 같더라. 2016년 우리나라에 큰 시위가 있었어. 그렇지만 조금은 평화적인 촛불 집회였지. 그때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였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려 해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어. 아마 5·18 때 광주 시민들이 이 촛불 집회를 본다면 매우 놀랄걸?

만약 2024년의 우리가 5·18을 겪는다면 나는 일찌감치 어디론가 도망치겠지? 나는 그렇겠지만 어딘가에선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이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이 알려진 게 아닐까?

우리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도 배운 적이 있어. 그때 당시 정부는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만 신문 뒤쪽에 조그맣게 써 놓았지. 그리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연락을 통제해 놓고 말이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어. 군사주의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뿌리 잡았지. 그래서 평화적인 시위가 있을 수 있었을 지도 몰라. 아마 때 당시의 네가 보면 많이 놀랄걸? 이토록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될 수 있던 것은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이었던 것 같아.

만약 아직도 군사주의의 시대였다면, 아마 나도 너와 같은 5.18을 겪지 않았을까? 1980년 광주에 있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네가 좌절했던 것처럼, 너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의 꿈이 없어지고 사라졌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5·18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

1980년 5월 광주에 민주주의가 깃들여 있었다면 이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평화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아마 이걸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확실한 건 5·18처럼 큰 참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계속 지속할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확실히 국민의 권력은 강해

졌어. 그러니 1980년 그날처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좋겠어.

시계공이 된 너의 꿈이었던 '달리기'. 넌 비록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5·18로 인해 멈춘 너의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보살펴주고, 보듬어준 일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을 거로 생각해. 나도 잃어버린 너의 꿈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할게.